

사회

푸틴 막내딸 광주 며느리 된다

‘광주토박이’ 前 해군제독 윤종구씨 아들과 결혼 약속
러 국제학교 댄스파티서 첫 만남...12년간 사랑 키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이 광주 며느리가 된다. 푸틴 총리와 사돈을 맺게 될 윤종구(65) 전 해군제독이 광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광주토박이기 때문이다. 윤 전 해군제독의 형들도 모두 광주에서 살고 있으며, 푸틴 러시아 총리의 막내딸 예카테리나 블라디미르보브나 푸티나(24·사진)씨는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해 가족 상견례를 갖기도 했다.

윤 전 제독의 셋째 형인 윤종훈(73)씨는 “예카테리나 양이 한국을 4번 찾았고, 광주에도 왔었으며, 결혼을 결정한 뒤 서울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며 “매우 씩씩했고 성격도 밝아 가족들도 매우 좋아했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2명의 경호원이 밀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유롭고 발랄한 예카테리나의

모습이 윤종훈 씨에게 인상적이었다. 윤씨는 “모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려했는데 푸틴 총리가 무조건 모스크바로 오라고 해서 둘 다 가게 된 것”이라며 “푸틴 총리의 부인인 류드밀라 여사가 조카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에 따르면 친조카(26)와 예카테리나는 12년 전 윤 전 제독이 러시아 대사관 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외교관 파티에서 만나 사랑을 키워왔다. 그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간 윤씨를 따라 예카테리나가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부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만남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급진전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예카테리나는 한국에서 2주간을 머물기도 했으며, 윤씨는 그 해 12월 오스트리아에서 류드밀라 여사, 언니 마리나, 예카테리나와 휴가를 보내는 등 가족간의 만남도 스텝없이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이 국내·외에 알려지자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을 하기 전 푸틴 총리에게 윤씨와 예카테리나의 이야기를 건네며 덕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윤씨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병대에 지원해 제대했으며 현재는 삼성전자 모스크바 지사에 근무하고 있다. 예카테리나는 윤씨와 함께 한국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으나 푸틴 총리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제독이 푸틴 총리와 사돈을 맺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윤 전 제독의 형제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제독은 4형제 중 막내로, 첫째 형 윤종현씨는 작고했으며, 둘째 형은 윤종만(80) 전 전남대 의대교수, 셋째 형은 윤종훈씨다. 이들은 모두 광주 서중·일고를 졸업, ‘수재 형제’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윤종훈씨는 “일부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니 외교상 결례가 될 것 같아 동생이 좀 곤혹스러운 모양”이라며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 주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아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원름서 가스폭발 3명 부상

29일 정오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한 원룸에서 도시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룸 1층에 사는 최모(29)씨가 다리와 몸 일부에 2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3층에 사는 김모(여·21)씨는 가스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다른 김모(여·33)씨는 원룸 앞을 지나다 폭발 과정에서 튀어 나온 파편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이날 폭발로 원룸 1층이 크게 파손됐다.

원룸주거사 exian@kwangju.co.kr

도시주택에 너구리 출현 소동

○광주 도심 한 주택에 너구리가 나타나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29일 광주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안청동 신안마을 한 주택에 몸길이가 60cm, 몸무게 7kg 가량의 너구리 한 마리가 등장.

○신고와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은 장비를 이용, 너구리를 포획한 뒤 인근 동물병원에 이송했는데, 119 측은 이 너구리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

○광산구조대 송재민 팀장은 “야생동물은 벼룩과 진드기가 많은 만큼 손으로 만지는 일을 삼가야 한다”며 “특히 야생동물에게 물리면 공수병에 걸릴 수 있으니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0억대 ‘낙시문자’ 사기 일당 검거

2990원 소액결제 피해자만 160만명...30명 적발
“고객센터에 ‘부동의 결제 0원’ 설정해 피해 예방”



“애들아, 밥먹자” 전남대 사대부고(교장·곽대훈) 교직원과 광주 YWCA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7시부터 사대부고 정문앞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고 우리 농산물 소비 증대를 위해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벌이며 등교하는 학생에게 주먹밥과 음료를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초등학생 살인 용의자는 ‘불륜의심’ 이웃男

지난 26일 광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사건’(본보 10월 28일 6면)의 용의자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이웃 집 60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남부경찰은 29일 “지난 26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A(11·초고 5년)군을 살해한 용의자는 앞집

에 사는 서모(60)씨인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씨가 자신의 아내(61)와 A군 아버지와 관계를 의심해 집에서 아내를 먼저 살해한 뒤 A군을 살해했으며, 수사결과 불륜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희기자 kimho@

서구 마을버스 운행중단

시내버스 노선 변경 투입

광주시가 서구에서 운행중인 760번 마을버스가 화석경안원을 이유로 운행에 중단함에 따라 마을버스 일부 노선에 시내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마을버스 운행 노선 중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양동 발산 구간과 중앙지구 동부센트레빌 구간에 대해 인근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 운행한다.

양동 발산 구간은 애초 덕흥동~현대자동차~광천초고~농성1동주민센터~서광주전화국~광주역까지 운행했던 유덕65번(덕흥동~광주역) 노선을 덕흥동~현대자동차~발산교~농성중흥파크~서광주전화국~광주역으로 변경했다. 중앙지구 동부센트레빌 구간도 송암공단~송원고~중앙사거리~서구문화센터~장동동까지 운행하는 송암74번(송암공단~장동동) 노선을 송암공단~송원고~동부센트레빌~서구문화센터~장동동으로 바꿔 주민편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덕65번(덕흥동~광주역)은 25분 간격으로 하루 84회 운행하고, 송암74번(송암공단~장동동)은 18분 간격으로 하루 110회 운행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1분 / 해질 23시 52분 / 달돋이 17시 41분 / 달질 13시 04분

일교차 커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음	7/19℃
목포	구름많음	6/18℃
안동	구름많음	12/18℃
안주	구름많음	4/19℃
구례	구름많음	3/19℃
해남	구름많음	2/20℃
장흥	구름많음	2/21℃
고흥	구름많음	6/20℃
순천	구름많음	6/19℃
영광	구름많음	4/17℃
진도	구름많음	4/20℃
전주	구름많음	5/18℃
남원	구름조금	2/18℃
혁신도	구름많음	11/15℃

지역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	🍷	🏠
서해 북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2.5m	☀	🍷	🏠
남해 동부 앞바다	북~북동	2.0~3.0m	☀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1(일)	1(월)	2(화)	3(수)	4(목)	5(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7/18	5/18	7/16	5/17	5/17	8/17

국내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범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기단은 정보이용료가 3000원 미만일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결제되는 점을 악용해 하루 50여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최대 소액결제 사기 일당 검거=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멀티미디어 문자메시지(사진이나 그림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이하 MMS)를 보낸 뒤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김모(30)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1)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를 도운 일당 2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1000만개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로 ‘미확인 포토크레딧이 도착했습니다’ 등의 MMS를 보낸 뒤 이를 보기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는 사용자들에게 2990원을 부과하는 수법으로 160만명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정보이용료가 3000원 미만일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대부분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정보이용료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거나 소액이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일당은 또 인터넷에서 약 1000만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주고 구입한 뒤,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면 ‘낙시문자’=대부분의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미확인 포토 멀티 메시지가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MMS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MMS를 확인할 때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착한 MMS를 읽기 위해 휴대전화의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보이용료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MMS를 보낸 뒤 이를 휴대

이용호씨 변호인 상대 사기 ‘범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9일 복역 중 자신의 변호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용호(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형 집행 중에 범행했으며 앞선 판결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사업가 J씨를 만나 ‘사업자금을 빌려주던 상장회사 약속어음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여 1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변호인에게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2006년 9월 변호인에게 “상장기업을 인수하려는데 10여억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인수를 하면 자신의 30% 주식을 주겠다”고 속여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1년 회삿돈 800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의 흑이 드러나면서 관련 사건이 ‘이용호 게이트’로 불렸다. 그는 2005년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증인의 위증이 드러나 일부 사건의 재심이 시작되면서 2007년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여수산단 직원, 기자와 짜고 5억대 취업사기

여수국가산단내 대기업 직원이 지방 일간지 기자와 짜고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최근 여수산단내 L기업 직원 박모(52)씨와 모 신문사 기자 정모(39)씨가 “L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씨 등은 구직자 1명당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을 받는 등 8명으로부터 총 5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정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박씨는 지난 26일 휴가를 낸 뒤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대법, 죽산 조봉암 사건 ‘재심’ 결정

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 죽산 조봉암 선생(1898~1959) 사건에 대해 재심이 이뤄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간첩 등)로 1959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내려진 조봉암 사건에 대해 장내 조호정(82)씨 등 유족이 낸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봉암 선생은 군인·군속이 아닌 일반인이므로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수부대에서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며 “특무대 소속 중령 등이 선생을 수사한 것은 헌법과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50만 고객을 위한 불륜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하나SK 카드
5437 0725 5676 9032
HANASK KIN SHIN YONG
MasterCard

카드 외의 50%할인 / 영수증 연인 2회 무료 / 주유, 마트, 대형 2천원 할인 / 학원, 병원, 민원 할인